

소태산대중사종곡유숙터

소태산 대중사는 원기 4년 (1919년) 8월 21일 법인 기도를 통해 법계의 인증을 받고, 그 해 10월 내변산에 입산하여 실상사 옆에 초당 (봉래정사) 을 마련하고 교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영광과 변산은 200여 리나 떨어진 멀고 험한 길이라 중간 거점이 필요했다. 따라서 원기 6년에 고평소와 줄포의 중간 지점인 부안군 보안면 신북리 종곡 (宗谷) 마을에 사랑채가 있는 집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유학자인 이춘풍선진 (법호 : 훈산 (薰山), 본명 : 이지영) 이 고종사촌 동생인 정산 종사 일가를 고향으로 돌아 오도록 설득하려 왔다가 대중사를 뵈고, 공자, 맹자를 뵈는 듯 황홀하여 제자가 되어 원기 4년 5월에 춘풍 (春風) 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 이처럼 ‘소태산대중사종곡유숙터’ 에서 바디재를 넘어 봉래정사에 이르는 길은 제법성지의 관문으로, 소태산 대중사를 모신 신성의 길이자, 시봉의 길이요, 보은의 순례길이다. ”



종곡유숙터에서 바라 본 봉래정사 길

소태산대중사종곡유숙터 (원기 9년 ~ 현재)

원불교는 원기 9년 (1924년) 익산에 새 회사의 터전을 마련했다. 이춘풍선진이 봉래정사 관리 수호의 책임을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종곡유숙터의 기능이 약화되고, 소유권마저 지방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면서 잊혀져 갔다.

이후 원기 63년 (1978년) 원불교 문화원을 중심으로 제법성지의 성역화 사업이 전개되자 자연스럽게 종곡유숙터의 복원이 부각됐다. 이를 계기로 원기 93년 (2008년) 좌산 상사의 금일봉을 바탕으로 원불교 부안지구와 문화사회부가 협력하여 세 차례의 거래를 통해 600 평의 종곡유숙터 부지를 확보하고 교적지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했다.



그러나 부지만 확보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자 종곡유숙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원로 선진들이 중심이 되어 제법성지의 관문인 소태산대중사종곡유숙터 건립 불사에 대한 여론이 일어났다.

원기 100년 (2015년) 11월 19일에 열린 제72회 원불교 문화재 관리위원회에서는 종곡유숙터를 교적 12호로 결의 하고, 원기 101년 2월 16일 133회 임시위원회에서 '소태산대중사종곡유숙터' 로 이름 짓고 원불교 교적 제 12호로 지정했다.



이처럼 시봉의 도에 정성을 다했던 경타원 정삼리화 정도와 출신 이춘풍 교무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신축된 사랑채 건물을 경훈당 (敬薰堂) 이라 명했다.

- 원불교 교적 제 12호 -



이후 원기 6년 겨울에 이춘풍선진 가족이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이사를 단행하자 소태산 대중사는 사산 오창건 종사를 대전까지 보내어 '소태산대중사종곡유숙터' 로 안내하고 수호의 책임을 주어 회사 창립에 동참하게 했다.

이후 '소태산대중사종곡유숙터' 는 원기 9년 (1924년) 익산 총부가 건설되기 전까지 소태산 대중사는 물론이고, 영광과 전주, 김제 방면에서 봉래정사를 찾는 제자들의 유숙터가 됐다.

특히 소태산 대중사를 시봉하던 김남천, 송적벽 등은 줄포 장에서 생필품을 구입해서 바디재를 넘어 봉래정사로 들어가는 중간 거점 역할을 했다. 또한 이만갑, 구남수, 장적 조선진은 여성으로 험한 산길을 걸어서 찾아오자 소태산 대중사는 그들의 신성을 치하했다. (대중경 신성품 13장)

이후 종곡유숙터의 600 평의 공터에 교적지다운 면모를 갖추는 일이 부각되었고 문화사회부와 부안지구, 줄포교당이 중심이 되어 원기 101년 (2016년) 1월 1일에 기도를 결제하고 보은 불사를 추진했다.

원기 102년 7월 20일 원불교 건축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원기 102년 8월 25일 시공자 대표인 임인선 교무와 건물건축에 대한 계약이 체결됐다. 이후 건축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원기 102년 (2017년) 10월 10일에 상량식을 거행하고, 동년 12월 31일에 건축공사가 마무리 됐다. 그러나 겨울 날씨로 토목 공사가 늦어져, 원기 103년 3월 25일 준공 허가를 받아 4월 1일에 신축봉불식을 거행했다. 소태산대중사종곡유숙터의 연건평은 42 평으로, 15 평의 법당과 27 평의 생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후 종곡유숙터는 순례객을 위해 사랑채가 있던 옛 모습을 재현 하고자 원기 104년 (2019년) 9월 30일에 경훈당을 완공했다.

소태산 대중사가 머물던 초창기 변산 제법 시설, 이춘풍과 아내 정삼리화는 소태산대중사종곡유숙터 수호에 정성을 다했다.

특히 정삼리화는 소태산 대중사의 의복을 손질할 때는 생불 (生佛) 님의 옷이라 해서 방바닥에 놓고 발로 밟지 않고 손으로 눌러 손질을 해서 올랐다.

이처럼 시봉의 도에 정성을 다했던 경타원 정삼리화 정도와 출신 이춘풍 교무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신축된 사랑채 건물을 경훈당 (敬薰堂) 이라 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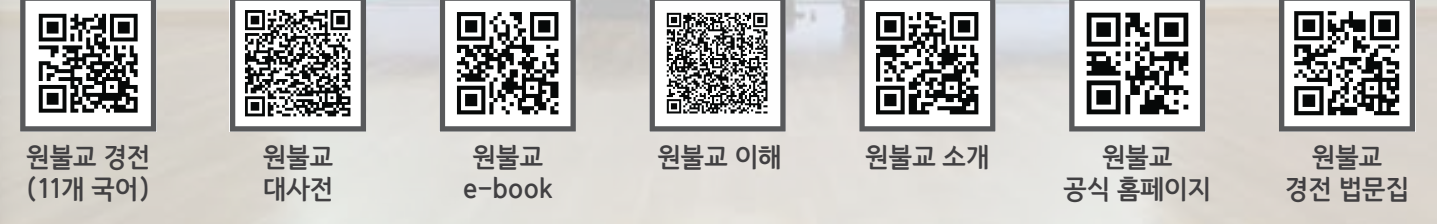
종곡유숙터
봉불식
(동영상)

원불교

원불교는 소태산 대중사 (少太山 大宗師, 성명 : 박중빈 (朴重彬)) 가 원기 1년 (1916년) 4월 28일에 궁극적 종교 체험인 대각 (大覺) 을 이룸으로써 창립된 종교 교단이다.

소태산 대중사는 깨달은 진리의 상성을 일원상(○)으로 표현 하였고, 법신불 일원상 (法身佛 一圓相, ○) 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았다.

원불교는 정신 개혁을 주장하고, 불법 (佛法) 의 시대화 · 대중화 · 생활화를 표방했다. 소태산 대중사는 대각 직후에 최초 법어를 설하고, 구인 제자를 선정하여 십인 일단의 수위단 (首位團) 을 조직함으로써 교화단 체제를 마련했으며, 1회 12년 제1대 36년의 창립 한도 (創立 限度) 를 정하고, 열반에 앞서 교단 삼대 사업 목표로 교화 · 교육 · 자선을 선포했다.



소태산 박중빈 대중사 (少太山 朴重彬 大宗師)



원불교의 교조. 아명은 처화 (處化) 진섭 (鎭燮), 족보명은 희섭 (喜燮). 중빈은 법명. 법호는 소태산 (少太山) 원불교 교단의 존호는 대중사 (大宗師) · 원각성존 (圓覺聖尊) 으로 받든다.

1891년 5월 5일 (음력 3월 27일), 전남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 영촌 마을의 평범한 농가에서 부친 박희경 (朴晞暉) 과 모친 유정천 (劉定天) 의 4남 2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진리에 뜻을 두고 오랜 구도 고행 끝에 1916년 4월 28일 일원상 진리 (一圓相 真理) 를 대각하고 원불교를 창립했다. 원불교에서는 이 날을 대각 개교절 (大覺 開教節) 로 정하고 경축하며, 이 해를 원기 (圓紀) 원년으로 헤아린다.

소태산 대중사는 최초 법어를 설하고 시국을 살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혁하자' (『대중경』 서품 4) 는 표어를 지도강령으로 삼았다.



소태산
일백년의 꿈
(동영상)



소태산
대중사
대사전



소태산 대중사는 구인제자를 회상 창립의 표준 제자로 내정하고 저축 조합과 방언 공사를 시행하며 법인 기도 (法證祈禱) 를 행한 다음, 1919년 (원기 4년) 주석처를 전북 부안으로 옮겨 교리 강령 (敎理 綱領) 을 제정하고 교서를 초안 하며 회상 창립을 위한 인연 규합에 힘썼다.

1924년 (원기 9년) 6월 1일 전북 익산의 보광사 (普光寺) 에서 불법 연구회 (佛法 研究會)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에 익산시 신흥동 344-2 번지에 중앙 총부를 건설하여 전무 출신 공동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소태산 대중사는 28년간 각종 제도 확립 · 인재육성 · 교서편정 · 교화 훈련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가 1943년 (원기 28년) 5월 16일 생사 법문 (生死 法門) 을 설하고, 6월 1일 열반했다.

실상사



부안군 내변산 중계리 실상동에 있다. 통일신라 때 초의선사가 창건하였다 하며, 변산의 산내 사찰을 실상사에서 관리했다고 전해진다. 소태산 대중사가 1920년 (원기 5) 초에 실상동에 와서 실상사 옆 봉래정사에서 4년간 머물며 당대의 선승들과 교제했다. 당시 실상사 주지는 한만해 (韓滿海) 스님이었다.

내소사, 청련암



소태산 대중사는 영산, 변산 내양 시 공소를 이용할 때, 내소사를 간혹 들렀고, 내소사 공양주의 정신을 답오라며 공양주를 여러라 말삼한 법문. 정산 종사의 내소사 스님의 종기 이야기를 통해 온신 처사에 신중함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청련암은 부안군 변산면 석포리 내소사에 속한 암자이다. 소태산 대중사의 청련암 산행 중 일화의 법문이 대중경 수행품 34장에 전해진다.

공소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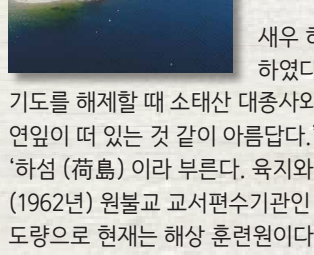
부안군 진서면에 위치한 어항이다. 소태산 대중사가 당시 영광에서 변산, 봉래정사를 오려면 배편이 제일 빨랐으며 법성포에서 배를 타고 공소항 또는 줄포에서 내려 도보로 봉래정사에 갔다. 소태산 대중사가 부안 봉래정사에 주석할 때 영산이나 영광지방 제자들이 배를 타고 공소, 또는 줄포에 내려 봉래정사로 들어가는 해로의 길목이 되었던 어항이 공소항이다. 대중경 성리품, 실시품에 공소항 지명이 나온다.

인장바위



부안 변산 실상동 계곡 건너 산 꼭덕에 있는 바위. 도장 (圖章) 을 세워 놓은 것처럼 생김 바위 같다고 해서 도장바위 또는 장군바위 라고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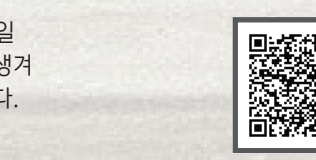
하섬 / 하섬 교서 편수터



부안군 변산반도의 서북해안에 위치한 원불교 유일의 해상 수양원인 동시에 훈련도장이 있는 곳으로 총면적이 약 3만 5천여평의 섬이다. 1969년 (원기 54) 원불교에 귀속되었다.

원불교 교적 제 11호

새우 허리처럼 굽다 하여 '하섬 (蝦島)' 이라 하였다. 원기 4년 (1919년) 말 쌍선봉에서 법인 기도를 제해할 때 소태산 대중사와 정산 종사가 이 섬을 바라보며 "연못에 연잎이 떠 있는 것 같이 아름답다." 고 하였던 것이 기연되어 연잎섬 하섬 (荷島) 이라 부른다. 육지와 거리가 1km 정도이며, 원기 47년 (1962년) 원불교 교서편수기관인 '정화사 (正化社)' 에서 칠대교서를 편수한 도장으로 현재는 해상 훈련원이다.



하섬은 음력 1일과 15일부터 각 3일 정도의 간조 때가 되면 바닷길이 생겨 도보로 왕래할 수 있는 길이 나온다.

변산성지



변산성지는 소태산 대중사가 5년간 기거하며 교법을 반포한 곳이다. 교법을 반포한 봉래정사 (蓬萊精舍) 는 전북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에 있으며 국립 공원 변산반도의 중앙에 있다. 변산반도는 해안 쪽을 외변산, 내륙 쪽 골짜기를 내변산 이라 하는데 변산 제법성지 사적지는 내변산에 있다. 소태산 대중사는 월인기도를 마치고 원기 4년 (1919년) 10월 변산에 들어가 교법을 제정하고 교단 초기 인연을 특히 익산 총부 (현 중앙총부) 건설의 인연들을 만나면서 원기 9년 (1924년) 5월까지 기거한 곳이다.



변산성지
대사전



교리강령 선포
100주년 기념
(동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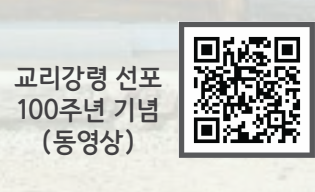


소태산 대중사는 일찍부터 세회상 창립의 준비를 위한 휴양처를 물색하여 원기 4년 (1919년) 3월에 사산 오창건 종사와 함께 부안 봉래산 (변산) 월명암에서 10여 일 머문 후 돌아와, 7월 말에는 다시 정산 종사를 보내어 미래의 근거를 정하게 하였고 10월에 이르러 몇 해 동안 수양할 계획에 따라 월명암으로 가게 되었다. 이후 소태산 대중사가 월명암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인근에 퍼지자 전주, 김제 등지에서 송적벽 등이 달려와 모시기를 원하여 그 해 (1919년) 12월에 봉래산 중앙지인 실상사 옆 초당에 거처를 정하고 몇몇 제자와 더불어 간고한 살림을 하면서 심신의 휴양에 주력하였다.

원기 5년 (1920년) 4월에 소태산 대중사는 봉래정사 (실상초당, 석두암) 에서 인생의 요도 - 사은사오와 공무의 요도 - 삼강령 팔조목을 새 회사의 교강으로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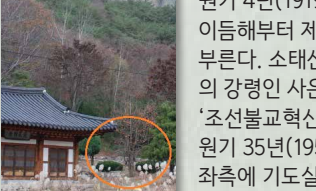
교강의 의미



교리강령 선포
100주년 기념
(동영상)

제법성지 순례길을 따라

실상초당 (實相草堂) 터



실상초당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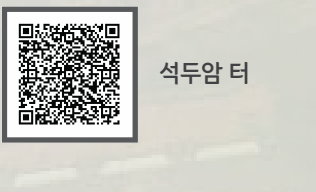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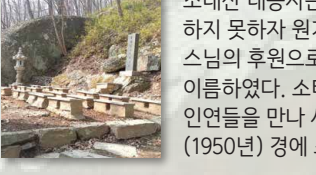
원불교 성적 제 9호

원기 4년 (1919년) 소태산 대중사가 부안 변산으로 들어와 이듬해부터 제자들과 함께 머물던 집을 '실상 초당' 이라 부른다. 소태산 대중사는 원기 5년 (1920년) 이곳에서 교리의 강령인 사은사오와 삼학팔조를 제정 발표하였으며, '조선불교혁신론' 과 '수양연구요론' 을 차례로 초안하였다. 원기 35년 (1950년) 경 소실되어 빈터로 남아있다. 초당터 좌측에 기도실을 새로 건축하였다.



조선불교혁신론
수양연구요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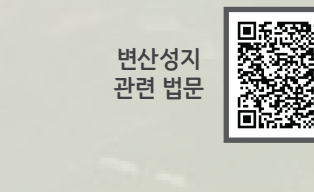
석두암 (石頭庵) 터



석두암 터

원불교 성적 제 10호

소태산 대중사는 찾아오는 제자들을 실상초당에서 모두 수용하지 못하자 원기 6년 (1921년) 월명암 백학명, 실상사 한만해 스님의 후원으로 제자들과 초기 삼강을 지어 '석두암' 이라 이름하였다. 소태산 대중사는 거처를 이곳 으로 옮겨 창립 인연들을 만나 세회상 공개를 준비하였다. 원기 35년 (1950년) 경에 소실된 터에 '일원대비' 가 건립되었다.



변산성지
관련 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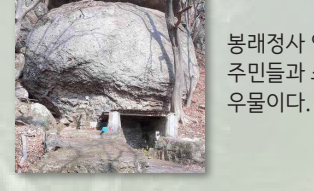
봉래정사



일원대도비



응두섬



소태산 대중사는 변산 제법성지에 머물며 많은 법문을 설했다. 그중에서 특히 성리 법문을 많이 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중경』 교의품 15장 '노부부 실지불공', 수행품 34장 '일행삼인의 공부', 인도품 32장 '음행이 법문', 성리품 10장 '만법기일 소식', 성리품 11장 '변산구곡로 성리', 성리품 18장 '정성인가', 심시품 2장 '인장바위 법문', 심시품 3장 '두 제자 싸우고 떠나는 일화'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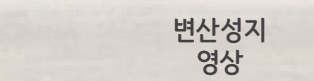
원광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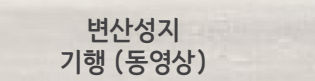
정산종사 추모탑



원기 63년 (1978년) 에 정음교당이 중심이 되어 부속 임야와 함께 사찰을 인수해 현재 [원광선원] 이 되었다. 원기 77년 (1992년) 에는 수양원에서 변산 원광 훈련원으로 개칭, 교도들의 훈련에 임하고 있다. 원광선원의 인수는 교단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 제법성지가 소실된 후 특별한 관리를 해오지 못했던 변산성지의 장엄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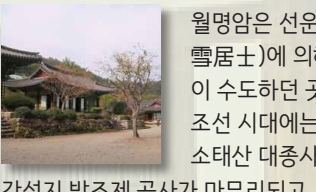


변산성지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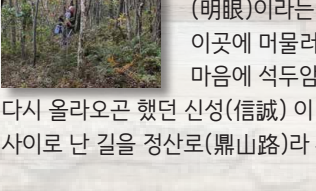
변산성지
기행 (동영상)

월명암, 상선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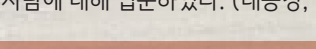
월명암은 선운사의 법사로 통일신라 시대 부설거사 (浮雪居士) 에 의해 창건된 암자이다. 그의 딸 월명 (月明) 이 수도하던 곳이라 하여 월명암이라 부르게 되었다하며, 조선 시대에는 진목스님이 주석한 선도량 사찰이다. 소태산 대중사의 월명암 방문은 1919년 (원기 4) 길룡리 간석지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되고, 수양 보림하며 새 회사의 창립을 준비하는 시기에 이뤄졌다. 월명암에서 소태산 대중사는 백학명 스님을 만나 교류하였다. 소태산 대중사는 영산에서 제자들과 법인기도를 마친 후 월명암과 가까운 쌍선봉에서 정산 종사, 사산 오창건 종사와 함께 완전한 회향식을 가졌다.

정산로



원기 4년 (1919년) 7월에 월인 기도가 끝나자 정산 종사를 월명암에 보내어 백학명 선사에게서 2년간 명안 (明眼) 이라는 법명으로 상좌로 있게 하였다. 정산 종사는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스승을 가까이 모시고 싶은 마음에 석두암까지 내려가 대중사의 법문을 듣고 새벽에 다시 올라오곤 했던 신성 (信誠) 이 동진 곳이다. 후에 봉래정사와 월명암 사이로 내 길을 정산로 (鼎山路) 라 부르고 있다.

봉래구곡



내변산의 직소폭포에서 흐른 물이 구절양장 (九折 羊腸) 으로 꺾이고 갈마다 평평잡한 반석 위로 흐르는 단조로운 물줄기를 이루었고, 은반에 옥이 구르듯 몇 군이 갈마다 반석 아래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머무는 듯 넘나드는 곳이 봉래구곡 (蓬萊九曲) 이다. 소태산 대중사는 봉래정사에서 제자들에게 봉래구곡을 비유 하여 도를 깨닫는 사람에 대해 법문하였다. (대중경, 성리품 11장)